

본문: 요한복음 8 장 1-11 절

제목: 몸을 굽혀 막아 서다

1.

미국에 오기 전에 미국에 왜 그렇게 노숙자가 많을까 그냥 궁금했습니다. 막상 미국에 와보니 누구든지 노숙자가 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실직 후 3 개월만 집세를 못 내도 살던 집에서 쫓겨나 노숙자가 됩니다. 큰 병에 걸려 치료비를 갚지 못하고 파산하여도 노숙자가 됩니다. 남의 이야기인 줄로 알았는데 우리 이웃의 이야기이며 나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십일 동안 굶는 상황에 몰린다면 우리라고 장발장이 되지 않으라는 법이 있을까요? 우리가 살인자나 범죄자가 되지 않은 것은 그런 위기의 상황에 몰려 보지 않았을 뿐입니다. 소설 <레 미제라블>에서 코제트 어머니로 요절한 팡틴이 등장합니다. 팡틴은 공장에서 쫓겨나 빗더미에 앉게 되죠. 결국 금니를 뽑고, 머리털을 팔아보지만 그것으로도 부족하자 몸까지 팔게 됩니다. 그녀가 원해서 몸을 파는 여인이 되었나요? 그녀도 꿈 많은 소녀였습니다. "I Dreamed A Dream" 이라는 노래는 <레 미제라블>을 원작으로 한 뮤지컬에서 팡틴이 죽기 전에 부른 노래입니다. 그녀에게 닥친 불행을 밤에 찾아온 불청객인 호랑이로 묘사합니다. 암울했던 시대가 팡틴의 불행을 만들어 냈고, 그녀의 못된 공장 동료들이 그녀를 불행으로 내 몰았죠. 우리 삶이라고 극한의 위기에 몰리면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본문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간음한 여인은 생계형 매춘부인지 아니면 낭만형 간통범인지 본문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몸을 팔아야 했던 여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중년의 헛헛함을 육체적 사랑으로 채우고 있었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녀가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고 잡히지 않았다면 전혀 문제되지 않았겠죠. 그녀는 속된 말로 재수 없이 잡혀서 끌려 온 겁니다. 로마서 7 장 7-8 절에서는 율법과 우리 죄 사이의 관계를 말해 줍니다. 율법이 우리 죄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여인은 광장에 끌려 나오기 이전까지 자신의 행동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냥 아름다운 로맨스이자 중년의 타오르는 불꽃 정도라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 정도의 사건이 하나님의 심판의 불 빛 앞에 비쳐졌을 때 죽음으로 몰아 넣는 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 없을 때 행하는 행동들이 백일하에 공개된다면 어떨겠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탐조등 앞에서면 우리 모두는 죄인일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빛 앞에 노출 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라고 이 여인과 다른 사람일까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율법의 탐조등 앞에서 돌을 맞아 마땅한 죄인들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러한 죄인을 예수께서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일화는 다른 복음에는 없고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일화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어느 한 개인의 이야기를 기술하지만, 그는 대표성을 띄기도 하고 상징성을 띄기도 하는 존재로 묘사됩니다. 3장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는 양심적인 바리새인을 대표하죠. 4장의 모세 오경에 갇혀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참 예배자로 거듭나는지를 설명하죠. 5장의 38년 된 병자는 38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총체적 무기력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언약백성으로 일으킴을 받게 될 것을 38년 된 병자의 치유를 통해 설명합니다. 간음한 현장에서 잡혀 온 여인은 호세아서 등에 등장하는 간음한 현장에서 잡혀 온 음란한 여인 고멜과 대비되는 여인이죠. 고멜과 마찬가지로 이 여인은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간음한 현장에서 붙잡혀 온 여인이 구원 받을 수 있다면, 이스라엘도 구원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재활복구를 통해 구원사적 맥락 안에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하나님을 예고했다는 거죠. 구원사적인 맥락 안에서 이 단락을 위치시켜 읽을 수 있다고 해서 실제로 간음하다 붙잡힌 한 개인으로서 여인의 구원 간증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2.

본문은 7장 마지막 상황과 잇대어져 있으므로 예루살렘을 배경으로 한 사건입니다. 모든 사람이 초막절이 끝나자 집으로 돌아갔지만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감람산은 예수님의 야외 기도처소이자 쉼터였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올리브(감람)산에 가셨습니다. 성전은 예루살렘 도성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성전의 동쪽 문으로 나가면 깊게 패인 골짜기 건너편으로 올리브산이 가까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골짜기를 건너 올리브산에서 기도하시며 쉼을 얻는 것을 예수님은 무척 좋아하셨던 것이죠. 저의 신학교는 서울의 광장동에 위치했는데, 신학교 뒷편에 바로 아차산이 있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열심히 학문을 연마하기도 했지만, 지치고 힘들 때마다 아차산을 거닐며 자연 속에서 쉼을 누리기도 하고 안식을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올리브산은 아차산보다 작지만 수백 년 된 올리브 나무들이 무성한 사이 사이로 공간들이 있고 바위들이 놓여 있어 기도하기에 적합한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피정(retreat) 장소가

바로 올리브 산이었던 거죠. 이곳에서 하룻밤을 보낸 예수님은 가르치시기 위해 올리브산에서 계곡을 지나 성전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죠. 앉아서 가르치셨다는 것은 랍비들이 사람들을 가르칠 때 보이는 행동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앉아 있는 랍비에게 늘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저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하는 질문들은 앉아서 가르치는 랍비가 받는 질문의 형태였죠. 이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한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위치에 있는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세의 율법을 들먹이며 이런 여자는 돌로 쳐죽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레위기 20 장 10 절에 “남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 곧 자기의 이웃집 아내와 간통하면, 간음한 두 남녀는 함께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신명기 22 장 24 절에는 이런 자들을 돌로 쳐죽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옛날에는 국가에 의한 형사 소추권이 발달된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개인이나 공동체에 의해 법이 집행됐습니다. 사악한 범죄들은 그 현장에서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바로 형을 집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여야 하느냐 마느냐는 질문은 실은 함정이 있는 질문입니다. 죽이지 말라고 하면 모세의 율법을 범하는 것이고, 죽이라고 하면 로마의 법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인을 죽이라고 한다면 로마 총독의 관할 지역에 있는 곳에서는 로마법에 따라야 한다는 로마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둘 중에 하나를 어기게 만들어서 예수를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고 결국에 예수를 죽이려는 수작이었던 겁니다.

3.

본문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어떻게 위기를 대처하시고 극복하느냐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들을 향해 가지시는 그분의 근본적인 긍휼의 마음을 깨달을 때 이 여인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도 울림을 줄 수 있습니다.

대적자들의 함정에 의해 예수님이 처한 상황이 진퇴양난 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예수님에게서 보여진 행동을 두 동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몸을 굽히신 것과 손가락으로 땅에 쓰신 행동입니다.

‘굽히다’는 헬라말은 ‘킵토(kypto, κύπτω)’입니다. 마가복음 1 장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말할 때 이 동사가 사용됩니다. “나는 몸을 굽혀서(kypto) 그의 신발

끈을 풀 자격조차 없습니다.” 몸을 굽혀 신발 끈을 푸는 동작은 종이 하는 행위입니다. 자신이 예수님께 종보다 못하다는 겸손의 표현이죠. 몸을 굽혔다는 것은 자세를 낮추셨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몸을 굽히신 행위는 바로 겸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관계에서 이것이 적용되어야 싸움이 없습니다. 부부사이에도 싸움이 나는 것은 굽히는 사람이 없을 때입니다. 한 사람이 속사포를 막 싸댈 때 그냥 뺏뺏이 서 있으면 안되고 몸을 굽혀 피해야 합니다. 거기서 고개를 뺏뺏이 들고 ‘그래 한 번 싸바라 내가 죽나 니가 죽나 보자’하고 덤벼들면 둘 다 죽는 겁니다. 사춘기 아이들이 부모에게 대드는 것은 인류가 시작될 때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자식들이 부모에게 죽어라 덤벼들면 부모가 몸을 굽힐 필요도 있습니다. 부모도 함께 죽자고 덤벼들면 아이도 상처받고 부모는 더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몸을 굽히신 것은 예수님의 지혜입니다. 여인을 끌고 온 사람들이 당황했을 겁니다. 의외로 예수님이 몸을 굽혀 버리시니까 할 말을 잃어 버린 거죠.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손으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쓰다’라는 헬라어 동사는 원래 그라포(*grapō, γράφω*)입니다. 동사의 동작을 강조하기 위해 전치사를 동사 앞에 붙이는데 이런 동사를 강세동사(emphasis verb)라고 합니다. 이 구절에서는 *Grapo* 앞에 *kata* 라는 전치사를 붙여 *katagrapo* 라는 동사를 쓰고 있죠. 즉, 예수님은 그냥 작은 동작으로 글을 쓴 것이 아니라 큰 동작으로 땅에 글을 쓰셨음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 동작이 반복되니 적대자들의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인내심의 한계를 느낀 그들이 다그쳐 묻게 됩니다. 글을 쓰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는 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내적인 침전효과라고 할까요? 우리 마음 속에 일어난 흙탕물들이 글을 쓰면서 가라앉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격동할 때 수화기를 들면 안 됩니다. 후회하게 됩니다. 말을 하는 것보다 글을 쓰는 게 현명합니다. 글을 쓰다 보면 어느 새 격한 마음이 가라 앉게 되고 새로운 지혜가 떠오르게 됩니다. 예수님의 몸을 굽힘과 땅에 글을 쓰신 이 두 동작은 우리가 본받을 귀한 지혜입니다. 무엇보다 몸을 굽히는 태도는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주는 매우 소중한 태도입니다. 분노하고 격앙되어 나를 향해 돌진해 오는 진퇴양난의 순간에도 몸을 구부려 글을 쓰시는 예수님의 정돈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우리도 본받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현장의 구도를 그려본다면 돌을 들고 죽이자고 달려드는 대적들과 죽음의 공포 앞에 떨고 있는 여인 사이에 놓여 있는 예수님으로 묘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 두 사이에서 두 마음을 동시에 품고 계셨던 것 같아요. 여인을 동정하는 마음과 동시에 율법을 깨고 싶지 않은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신다는 마음이 돌을 들고 서 있는 회중들의 분노인데 예수님은 그 마음도 이해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옷 매무새가 엉망인 채로 인간의 존엄을 파괴 당한 채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여인을 향한 무한한 동정이 예수님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십자가는 이 두 마음이 교차(cross)되는 곳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악 된 몸에 쏟아질 진노의 돌을 당신의 몸으로 전가시켜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양이라 부른 겁니다. 예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한 동시에, 그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으로 받아내시기로 하신 겁니다. 왜냐면 예수님은 죄를 지어 속절없이 무너져버린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 받은 피조물을 향한 무한한 동정과 사랑을 떨쳐낼 수 없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이 두 마음을 동시에 품은 채 회중과 여인 사이에서 굽혀 글을 쓰시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번뜩이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너무나 기가 막힌 답변이잖습니까? 도저히 빠져 나갈 수 없을 법했던 함정을 예수님께서서는 이 말씀 한 마디로 빠져 나오고 계십니다.

이 말을 들은 회중의 반응을 보십시오.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떠나가고, 마침내 예수만 남았다. 그 여자는 그대로 서 있었다.” ‘나이 많은 이’는 ‘Presbyterio’라는 헬라말입니다. Presbyterian 이 이 말에서 나온 겁니다. 나이 많은 이들부터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청년들은 아직 세상의 쓴 맛을 맛보지 못하고 부조리 가운데 깊이 들어가 보지도 않았기에 양심이 살아 있고 가책을 덜 받습니다. 그런데도 모든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떠난 그 자리에 여인을 돌로 내리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버리고 간 돌을 여인이 아니라 자신을 향해 드십니다. 실재로 돌을 든 건 아니지만 예수님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여자여...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무한한 자기책임을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향한 진노의 돌을 자기 스스로에게 던지신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저주 가운데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자기의 잘못으로 받으시고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의 죄를 지고 가시기 때문에 여인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고 가는 사람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5.

예수님은 여인의 죄를 용서하시며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 말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바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목적이 죄를 용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재활복구 시켜주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가능하다고 로마서 8 장 1-2 절 말씀은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 장 13 절에서 이 진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호적을 이전해 왔다고 말합니다. 국적이 바뀌고 살아가는 영토가 달라진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사함입니다. 신분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전에는 버려진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하면 우리 마음에 악한 마음이 들어올 틈이 생기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을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로마서 8 장 4 절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는 죄 용서에서 그치지 않고 죄를 짓지 않아도 기쁜 새로운 피조물로 재활복구시키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라고 다릅니까? 우리도 현행범과 같은 사람입니다. 운이 좋아서 기소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운이 좋아서 남을 죽일 상황에 놓이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도 현행범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담의 후손들로 아담적 연약함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만 가지 열매는 다 따먹어도 되는데 한 가지

열매만 따먹지 말라고 하는데 기어코 그 한 가지 열매를 따먹어 버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동정하십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자책하며 숨을 곳을 찾는 우리를 향해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시면서 아담의 죄를 처리하시는 하나님의 태도를 보십시오.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너 같은 놈은 있어 뭐하냐? 너 죽고 나죽자.”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가죽옷을 입혀 그의 죄를 덮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그를 다시 재활복구시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이 사건 이후 여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저는 한 소설을 통해 예수님 만난 이후 여인의 삶을 상상해 봅니다. 도스토예프스키의 소설 『죄와 벌』을 보면 주인공 라스콜니코프는 살 가치가 없는 벌레라고 생각한 노파를 죽인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 합니다. 그 소설을 통해 죄 자체가 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죄와 벌』에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기폭제와 같은 사람으로 라스콜니코프를 묘사합니다. 그런데 ‘소냐’라는 생계형 매춘부가 그를 조건 없이 받아 줍니다. 그녀가 기폭제 같은 그를 끌어안으면서 문제는 해결됩니다. 소냐의 조건 없는 사랑으로 그는 어린아이처럼 잠잠해지게 되죠. 소설 속에서 그렇게 불안에 떨고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던 라스콜니코프도 소냐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나서 그를 향하여 날아올 정죄의 화살을 예상했는데, 소냐는 그 모든 발작을 스펀지처럼 다 빨아드려 버립니다. 주인공의 발작과 죄성에도 불구하고 한 여성에 의해 그것이 용납되어짐으로 구원은 외부로부터 타자에 의해서만 주어진다는 것을 주인공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소냐는 성경을 통해 먼저 용납받은 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여인과 일맥상통한 여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창녀를 통해 또 다른 누군가가 치유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라스콜니코프는 소냐가 읽어주는 요한복음의 나사로의 부활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삶도 다시 태어날 수 있을 소망을 갖게 됩니다. ‘Wounded healer’라는 말이 있죠.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용납되고 용서 받은 자로서 다른 이들을 치료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른 이들을 향해 돌을 드는 대신 용서하고 용납하고 덮어주는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치유가 있고 화해가 있고 평화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